<유 공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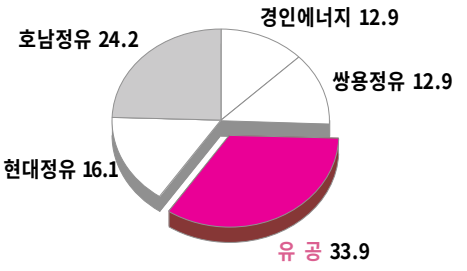
“안일한 관료주의 독과점적 의식구조가 성장 걸림돌”

에너지 독과점전략

유공은 주사업인 석유정제사업에서 석유화학 및 윤활유사업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룬 선경그룹의 주기업으로 70년대말까지 국내시장을 독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듯 했다.
유공은 68년 호남정유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시장의 60 70%를 차지했으나 80년대에 쌍용정유와 경인에너지의 시장참여로 기존체제 구축을 위한 유공과 호남정유의 치고받는 난타전과 감정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정유 등 후발기업의 시장참여로 위기를 느낀 유공 등 선발기업은「주유소 거리제한」등의 방법으로 신규참여를 저지했고 로비를 통해 유리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선발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후발기업의 시장참여로 93년기준 유공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39%로 나타났다.
유공의 사업부문별 매출구성을 보면, 에너지부문이 70년 100%에서 80년 92%, 90년 80%, 2000년에는 65%로 낮아지고, 화학부문은 80년 8%, 90년 20%, 2000년 30%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1】 국내 정유기업의 대리점 계약현황 (1994.6)

(단위 %)



【표1】 유공의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매출액 순이익률			자본금 순이익률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A	당기 순이익 B	비율 B/A	자본금 C	비율 B/C	총자산 D	자기자본 E	비율 E/D	고정자산 F	비율 F/E	A/D
1992	47,209	293	0.62	2,209	13.26	48,012	14,240	29.66	23,271	163.42	98.33
1993	53,270	354	0.66	2,431	14.56	50,575	15,098	29.85	24,206	160.33	105.33
증감	6,061	61	0.04	222	1.30	2,563	858	0.19	935	▽3.09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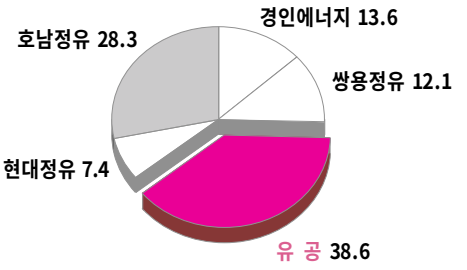
유공의 매출액기준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석유정제(휘발유 · 경유 · 등유 · B-C)가 총매출액의 79.0%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 0,5%, 석유화학 13.0%, 윤활유(그리스) 2.3%, 기타(Oil-Van · 프로축구단) 5.2%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추구사업으로는 천연가스의 수입 · 제조 · 저장 · 수송 · 판매 등의 천연가스부문과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등을 포함한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발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연가스사업 진출계획으로 유공은 자회사 대한도시가스를 통해 국내 가스 제조기업을 합병 · 매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춘천에 있는 대일도시가스 매각에 나섰으나 벽산에 밀려 실패했으며 다시 전북에 있는 보해도시가스를 매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부문은 추진계획과 투자규모는 미정이나 에너지 시장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쟁탈전으로 38.6% 차지

유공이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시장은 국내 주유소시장으로 직매 · 소매 · 가스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유공이 경영전략의 한 방편으로 직매주유소에 먼저 물량을 공급하고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공급작전으로 나서 이에 반발한 유공의 최대 대리점인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현대정유와 손을 잡음으로써 계열주유소에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유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유공은 정부개입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자율측면으로 다소 기울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동종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공 등 국내시장 선발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질서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은 자칫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공이 주장하고 있는 주유소 쟁탈전에 따른 유통비부담 가중문제도 국내 정유기업중 유공이 가장 많은 자금을 외상매출금과 장기대여금 형식으로 유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4년5월기준 기업별 외상매출금 상황을 보면, 유공이 4573억원으로 2위, 장기대여금부문은 33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해 전체유통자금중 40.4%를 유공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6월기준 상공자원부가 집계한 주유소 점유율현황을 보면, 총 6603개의 주유소중 유공이 2549개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고, 호남정유 1869개 28.3%, 경인에너지 897개 13.6%, 쌍용정유 796개 12.1%, 현대정유 492개 7.4%로 유공과 후발기업인 현대정유는 시장점유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2】 국내 정유기업의 주유소 점유율 (1994.6)

(단위 %)



【표2】 유공의 자산현황(1993)

(단위 : 100만원)

구 분	기초액	증감액	상각액	기말액
토 지	720,921	29,230	-	750,151
건 물	86,017	-1,940	4,600	84,077
구 축 물	125,399	21,398	15,404	146,797
탱 크	77,560	-6,338	12,611	71,222
기계장치	675,824	140,242	211,829	816,066
송 유 관	5,813	1,753	1,352	7,566
차 량	13,009	1,459	4,213	14,468
선 박	23	-3	4	20
공 기 구	34,849	1,262	14,780	36,111
합 계	1,739,415	187,063	264,793	1,926,478

유공의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군관납과 대형거래처가 전체매출의 39%를 점하고, 가정 · 상업용인 일반소비자용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내수와 수출기준으로 본다면, 내수는 전체의 78%로 가정 · 상업용원료 · 발전 · 선박 · 항공 · 군납 등이고, 수출은 선박 · 항공 · 미군납 · Bunkering 등으로 22%의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조직을 보면, 본사가 전체의 40%, 서울지사를 비롯한 10개지사가 60%를 점하고 있다.
지사별 판매점유율을 보면, 서울 13%, 경기 5%, 강원 4%, 충북 3%, 충남 5%, 전북 4%, 전남 4%, 경북 8%, 부산 9%, 경남 5% 등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경로비율로는 대리점이 전체의 61.0%로 주유소 · 충전소 · 부판점 · 중소산업체 · 운수회사 · 난방수요처 등에 대한 판매를 맡고, 발전 · 선박 · 항공 · 한국군 · 미군 등에 39.0%를 판매하고 있다.
각 부문별 판매방법 및 조건을 보면, 석유정제는 대금회수조건이 35일로 약속어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매달 10일 마감을 원칙으로 10일내 현금으로 조건을 걸고 있고, 윤활유는 월말결산으로 18일안에 현금지급, 석탄은 월말마감으로 90일짜리 약속어음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와의 수주계약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에 벙커C유를 92년4월에 수주하여 주문시 전체소요량의

42%를 공급하는 것으로 수주금액은 450억원, 현수주잔고는 187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군에는 93년4월부터 경유를 주문시 공급하기로 하고 총5359B/D, 수주금액 523억3000만원, 현수주잔고는 150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철도청에 93년2월부터 주문시 경유공급체결을 맺었고 수주금액은 220억원, 잔고는 36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국내항공에는 항공유를 매년 주문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고 수주금액은 1727억원, 국제항공에는 매년 공급을 원칙으로 521억원의 수주금액중 현재 266억원의 수주잔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계약은 대부분 1년 기간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체결해 놓고 있다.

【표3】 유공의 석유제품 수주현황

(단위 : 100만원)

품 목	수주 일자	납 기	수주총액		기납품		수주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B-C (한전)	92.4~	주문시	소요량 42%	45,000	소요량 42%	26,250	소요량 42%	18,750
경 유 (한군납)	93.4~	주문시	5,359 BD	52,330	5,359 BD	37,276	5,359 BD	15,054
경 유 (철도청)	93.2~	주문시	2,030 BD	22,000	2,030 BD	18,330	2,030 BD	3,670
항 공 유 (국내항공)	매 년	주문시 Pipe Line	2,800 BD	172,785	2,800 BD	82,000	3,100 BD	90,785
항 공 유 (국제항공)	매 년		1,200 BD	52,062	1,200 BD	25,500	1,250 BD	26,562
합 계				344,177		189,356		15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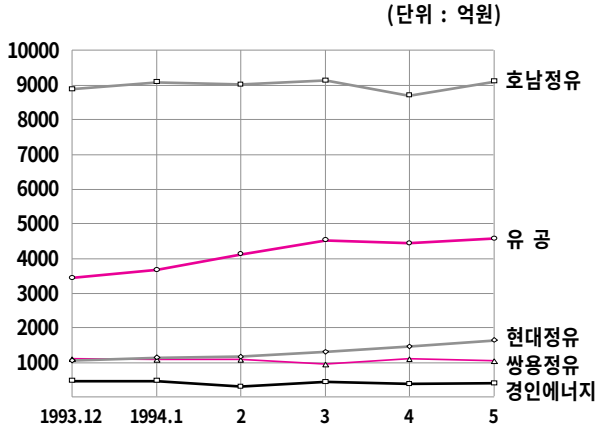
연구개발

유공은 94년 설비신설투자비로 총763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으며 향후에도 1조원이란 금액을 세워놓고 있어 언뜻보면 성장되어가는 기업처럼 보이나, 투자자금이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것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화학관련 매출액 1위인 유공에 걸맞는 프로세스 개발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질유탈황 · 분해공정, 부탄분리공정, 태양에너지제조기술 등의 스페셜기술부문은 거의 미국 · 일본 · 독일 등의 선진국기술에 의존하면서 막대한 기술도입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공의 기술개발 인력현황을 보면, 총 376명으로 울산연구소 155명, 인천고분자연구소 69명, 대덕연구소 93명, 본사 43명, 해외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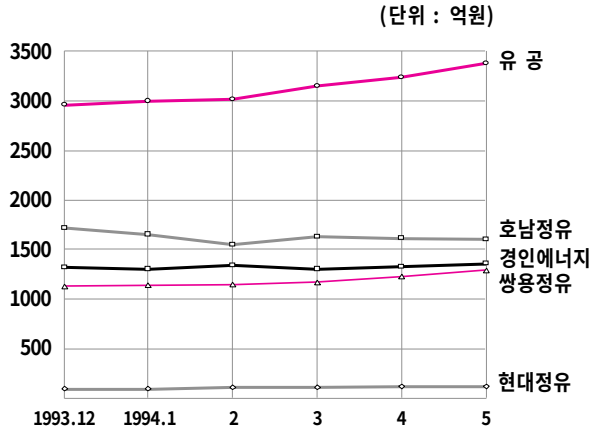
R&D투자비 매출액대비 0.1%
학력별로는 박사 69명, 석사 145명, 학사 48명, 기타 114명이고, 연구개발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가 66억2636만원, 연구개발비가 50억3668만원으로 전체매출액 5조3270억원의 0.1%에 불과해 R&D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구개발실적에 따르면, 92년부터 18개월간에 걸쳐 수질환경부문에서 신속BOD Meter를 개발했고, 89년부터 4년간에 걸쳐 가솔린엔진유(HIFLO)와 디젤엔진유(SD5000)를 개발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연구로는 93년부터 3년간 연료유첨가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3종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는 88년부터 8년동안의 기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KW급 개질기를 제작했고, 94년 한해동안은 초소형 가스보일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3년7월부터 제품개발에 들어간 유공은 최근 곰팡이제거제를 개발, 95년6월까지 계속 연구할 계획이

다.
그러나 유공의 곰팡이제거제인 「팡이제로」가 20억원의 광고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완전히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의 반품요구 전화가 걸려오는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은 곰팡이제거제의 94년 매출목표를 당초 15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94년 상반기동안의 판매실적이 50억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공은 하반기부터 당초 가정집을 대상으로 한 「팡이제로」를 기존의 유공주유소의 유통망을 최대한 이용해 자동차용 에어컨 냄새제거제로 바꿔 새로운 판매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공은 중소기업사업 분야만은 진출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방침과는 달리 물티슈 · 방충제 시장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규모에 걸맞지 않은 투자라는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공의 좀방지용 방충제는 옥시의 「하마로이드」 카피품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또 93년부터 18개월에 걸쳐 차단성 필름을 이용해 농약용기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술개발부문에서는 8 9년전부터 촉매를 비롯해 고분자중합 · 유전공학 등의 연구개발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기처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는 에틸렌 생산관련 촉매는 3종중 2종만 개발에 성공했으나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연구가 끝났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품들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해도 무난한 제품들로써 차라리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양하고 상품화를 유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주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듯 보이나 전체매출액에 비해 연구개발비의 낮은 수준은 국내 최대의 정유기업으로서의 면목이 서지 않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공은 90년말에 발생한 걸프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내 화학기업중 하나로 걸프전으로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30 40달러선으로 폭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매출이 19.9% 신장되면서 판매증가율 9.5%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유공이 이렇듯 판매물량 증가를 훨씬 넘는 매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유공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노력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국제 유가의 폭등에 따른 것으로 석유제품 매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석유화학도 나프타 등 원료가격 상승에 편승한 대폭적인 가격인상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3】 국내 정유사별 외상매출금 현황



【그림4】 국내 정유사별 장기대여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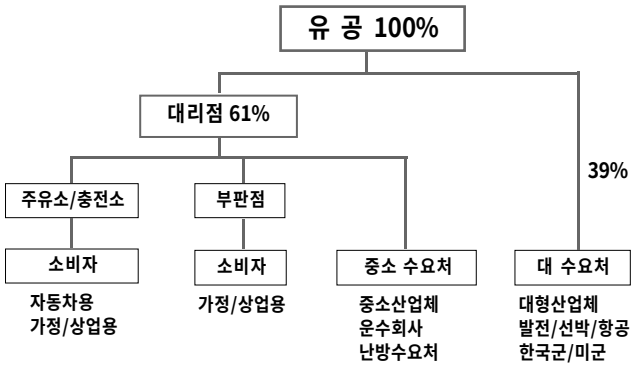
임금구조

유공이 자체 제작한 영업보고서에는 임원이하 전사원 5830명의 노무비중 급료 · 임금 · 제수당 · 복리비를 다합해 766억779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한 내용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1171억1309만원으로 404억3518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유공이 제시한 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00억975만원을 포함한다해도 304억2443만원이라는 돈의 근거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공주식 다량소유 임원을 보면, 공장장 및 부장을 포함한 8명의 주식합계는 5만4275주로 94년 10월 20일 기준 환산액으로 따지면 23억7182만원이다.
유공의 임원 연간 1인평균급여액은 7152만9000원으로 과장급미만 일반직사무원의 평균급여액 1354만3000원의 5.3배에 달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보고서에는 임원을 부 · 차장급에 포함해 급여계산을 해 1인 연간 평균급여액이 3453만6000원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같이 유공이 자체 제작해 주주총회 등에 뿌리는 영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영업감사보고서와는 상당부분 특히 자금의 흐름 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종업원 현황에서도 사무직 2642명, 기술직 3107명, 기타 81명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사무직 3384명, 기술생산직 2365명, 기타(고문/촉탁) 81명으로 나타나 58%, 40.6%, 1.4%의 비중을 보였다.

【표4】 유공의 기술도입 계약현황

계약내용	기술도입 국가 및 기업	계약기간
중질유 탈황공정	미국 Unocal	가동일로부터 12년
중질유 분해공정	미국 Chevron Research	88~2003년
접촉개질공정	미국 Uop	가동일로부터 10년
메트로필란 제조기술	Celgene Corporation	계약발효일로부터 10년
태양에너지 제조기술	미국 Chronar, Int'l Flnance	89년7월~2008년7월
이소프로필알콜 및	독일 Edeleanu	89년7월~공장가동후 15년
메틸에틸케톤 제조기술		
부탄 분리공정	일본 Nippon Zeon	89년7월~공장가동후 10년
Mobil Lube Dewaxing공정	미국 Mobil	가동일로부터 10년
유황수소 가스배출 저감공정	미국 TPA	가동일로부터 15년
폐황산 재생공정	미국 Monsanto Enviro-Chem	정부승인일로부터 15년

【그림5】 유공의 판매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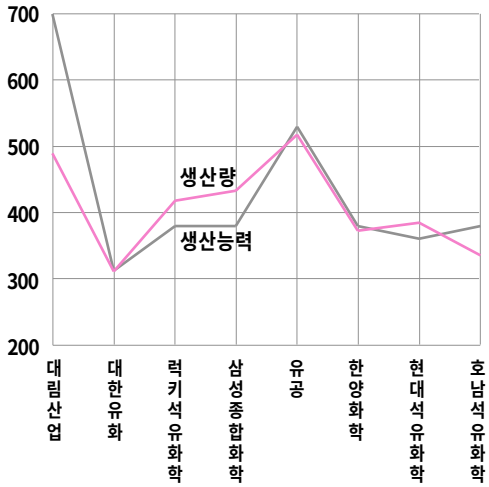
신증설 및 환경

최근 국내 석유화학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NCC기업의 무분별한 신증설계획으로 공급과잉체제에서 겨우 벗어나려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및 폴리머시장을 또 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특히 유공은 기초원료인 에틸렌과 폴리머의 수급균형을 이유로 LDPE와 PP를 각각 연산 10만톤규모의 공장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Badger의 기술을 도입 기존의 22만5000톤규모의 SM공장을 29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의 범용합성수지공장의 신설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가수요를 제외하고는 수요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93년기준 평균 95% 이상의 공급과잉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SM증설문제는 원료부족사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부기업의 NCC공장 증설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확한 시장판단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공의 제품별 사업진출 현황을 보면, C5유도품중 펜탄이 환경관련문제로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공은 국내 총생산량 1만6000톤중 81.3%인 1만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량에 비해 국내수요는 1만4000톤으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으며 EPS 환경규제 및 부탄으로의 수요대체로 전체시장이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펜탄은 발포공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그 밀도가 떨어지고 있고, 발포율 하락으로 원가비율이

상승되는 등 채산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섬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MX(Mix Xylene) 수요가 증가, 유공은 자가소비포함 60만톤의 생산에 이어 고려종합화학 등과 함께 25만톤의 수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는 MEK(Methyl Ethyl Ketone)용제시장에 진출 계획이 표면화되면서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유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91년 독일의 Edeleanu의 기술을 도입해 연산 3만톤규모의 MEK공장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기업의 덤핑에 따라 생산을 보류하던중 최근, 미국 경기회복과 NCC공장들의 잇달은 사고로 MEK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이를 호기로 삼아 재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이 환경적응형 제3세대 용제 개발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앞세워 신규진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공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사에만 눈이 어두워 전세계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인스턴트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매년 고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접착성수지 시장에도 유공이 참여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일으켜 국내시장이 과열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유공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94년 4 5월에 일어난 국내 NCC기업들의 트러블은 정기보수기간을 거치면서 나프타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자 공장가동률을 최고 120%까지 끌어올리는 등 무리한 라인가동이 계속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공은 연산 40만톤규모의 울산단지 NEP공장이 정기보수가 끝난 5월23일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한채 5월30일이 지나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라인결함에 따른 Start-Up기간이 일주일이상 늦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무리한 공장가동률에 따른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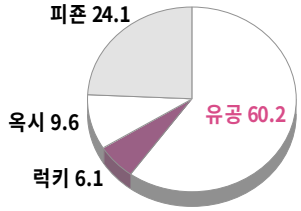
【그림6】 국내 NCC 생산능력 현황(1993)

(단위 : 1000M/T, %)



【그림7】 곰팡이제거제 내수점유율 현황
(1994 상반기 기준)

(단위 : %)



장기발전전략

유공은 정유 · 화학 · 윤활유 · 석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화학기업으로 국제 유가의 동향에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면서도 내수비중이 87%에 달하는 내수 지향형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유공이 재료의 구매에서 제품의 생산 · 판매 · 서비스 등에서 Globaliz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할 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화를 위한 정책조정 시급첫째,

【표5】 유공의 직급별 종업원수 및 급여현황 (단위 : 1000원)

직 능	직 급	연말인원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급여액
관리사무직	임 원	35	2,503,515	71,529
	부·차장	201	6,941,736	34,536
	과 장	612	15,277,072	24,962
	기간직	1,930	42,374,646	21,956
	일반직-사무	606	8,207,306	13,543
	소 계	3,384	74,009,633	21,870
생 산 직	일반직-기술	2,365	41,892,354	17,713
기 타	고문/촉탁	81	1,211,099	14,952
합 계		5,830	118,407,728	30,143

【표6】 사업소별 종업원 현황(1993) (단위 : 명)

사업소	구 분	연초인원	증 가	감 소	연말인원
본 사	남	1,394	56		1,450
	여	178		11	167
	소계	1,572	56	11	1,617
지 사/ 저유소	남	388	3		391
	여	40		1	39
	소계	428	3	1	430
울산공장	남	3,597		37	3,560
	여	241		18	223
	소계	3,838		55	3,783
합 계	남	5,379	22		5,401
	여	459		30	429
	합계	5,838	22	30	5,830

2000년대 국제화를 이룬 일류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독점기업의 체질에서 과감히 탈피해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선발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하며 경영인식을 혁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특혜속에서 성장해왔으면서도 후발기업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가격인상과 물량공급 횡포를 부려온 기업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후발기업들과의 마찰도 사업다각화 및 품질고급화에는 게을리하면서 타기업의 참여만 견제해 왔기 때문이다.
세째, 기술개발 투자가 미미한 반면 외적인 매출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이 짙어 하루빨리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투자를 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R&D 투자 없는 기업의 생존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자성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9】 유공의 공장가동 현황(1994.1 기준) (단위 : M/T, %)

구 분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량	재 고	비 고
NCC 제1공장	1,700	72	1,224		Tank Capa
NCC 제2공장	3,600	110	3,960		C_2 : 7540
C_2 제1공장	520	70	364		C_3 : 7115
C_2 제2공장	1,200	114	1,370	2,700	제품판매
C_3 제1공장	300	74	222		KPIC-C_3 : 99
C_3 제2공장	630	106	665	1,508	HYCC-C_2 : 323
벤 젠	970	97	945	8,191	동부화학-C_2 : 192
톨루엔	987	134	1,322	13,042	한국알콜-C_2 : 50
자일렌	1,280	85	1,087	8,842	동양화학-C_2 : 16, C_3 : 91
HDPE	450	117	528	15,579	
LLDPE 병산	450	-	-		PE-C_2 : 528
S M	750	103	775	3,811	SM-C_2 : 250
P O	335	96	320	3,100	PP-C_3 : 432
P P	450	96	432	12,258	PO-C_3 : 280
B D	290	83	241	1,112	EPDM-C_3 : 8, C_3 : 7
MTBE	300	138	415	1,220	

주) 1994년 정기보수 일정
NCC : 제1공장-미실시, 제2공장-4월18일~5월24일(37일간)
LDPE : 4월28일~5월19일(22일간)
PP : 5월3일~5월15일(13일간)
SM : 9월1일~10월15일(45일간 계획)

【표9】 유공의 설비 신설·매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기간	생산능력	현투자금액	향후투자금액
신증설	93년~95년	정유능력38MBPSD	7	833
대규모수선	93년~95년	부대시설	24	99
제5정유시설	94년~96년	정유능력238MBPSD	162	2,721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94년~96년	40MBPSD	570	6,477
합 계			763	10,103

네째, 인사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울산단지내에서 수없이 발생한 폭발 · 가스누출 · 화재사고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정기보수후 다시 사고가 발생해 유공 경영자들의 안일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표8】 유공의 사업부문별 플랜트 평균가동시간 현황

사업부문	석유정제	석유화학	윤활유
일가동시간	24	24	8
월가동일수	28	28	23
연가동일수	330	333	275
연가동시간	7,920	7,992	2,200
연실제가동시간	7,465	7,604	2,243
평균가동률(%)	94.3	95.1	102.0

유공은 현재 매출액이 5조원을 넘어서 94년말 기준 6조원을 목표로 정유 4조2000억원, 윤활기유 및 윤활유 1800억원, 화학사업 1조5000억원을 계상해놓고 있다.

유공이 오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의 노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며, 정부의 특혜와 독과점, 국민의 희생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공은 이를 인식하고 자숙할 줄 아는 성숙한 기업으로 국민앞에 다가설 때만이 2000년대에 걸맞는 화학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저널 1994/11/1>